

목포 평화광장 스토리 있는 테마거리 만든다

갯바위~구름다리 1.2km 10월 '연인의 거리'로 선포 음악분수·유람선 등 연계 포토존·자물쇠 존 등 설치 전국적 관광명소로 조성

권목포시가 세계 최초의 '춤추는 음악분수'가 배치된 평화광장 일대를 특성화시켜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평화광장은 춤추는 음악분수 등을 구경하기 위해 연간 6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평화광장 주변에 밀집돼 있는 다양한 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유람선과 춤추는 바다분수, 평화광장 연형무대 등을 연계시킨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의 젊은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목포시는 갯바위 달맞이 공원에서 평화의 구름다리까지 1.2km 구간을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지정하고, 가을여행주간인 오는 10월 28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인의 거리 구간 내에는 22곳의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집결해 있으며, 퓨전 레스토랑과 전문 음식점, 호프집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또 인근에는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목포시는 연인의 거리에 기존 시설인 춤추는 바다분수와 유람선, 원형무대 등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상징 포토 존과 사랑의 자물쇠존 등을 설치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가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포시는 특히 연인의 거리 상징 포토존과 사랑의 자물쇠존을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 시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한다.

또 전문 DJ를 고용해 신창곡과 사연을 소개해 주는 연인을 위한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 평화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바다를 감상하고 있다. 목포시는 평화광장 일대를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조성한다. <목포시 제공>

수 스페셜 이벤트와 커피 전문점 브랜드 데이 운영, 버스킹과 난장 공연, 프리마켓 거리 운영, 푸드트럭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목포시는 연인의 거리 홍보를 위해 SNS는 물론 파워 블로거와 외국인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지정안내 표지판과 토퍼리(꽃으로 장식한 조형물) 등도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조성 사업은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관(官) 주도로 이뤄졌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민(民) 위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를 위해 목포시 관광과는 조만간 관광 동 주민자치센터인 신흥동과 부흥동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 내 상인들을 주축으로 한 가정 '평화광장 상인회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예로부터 예향으로



목포시가 도심 곳곳에 바다 등을 주제로 한 토퍼리(꽃으로 장식한 조형물)를 설치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명성을 떨쳐온 목포는 풍부한 예술 인적 자원과 시립예술단체, 근대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자원 등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며 "대학생, 청년층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매주 진행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목포만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향후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원도심에 알개시대 거리, 재보 선창과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대반동 추억의 거리, 비어(Beer) 거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목포시 '가정의 날' 운영

목포시가 '수요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등 가족 친화형 시정을 확대하고 있다.

5일 목포시와 국민건강통계 등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이 지난 10년 새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가족 동반 저녁식사 비

율이 76%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61.6%로 크게 줄었다. 이는 국민 10명 중 4명꼴로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긴 근로시간과 잦은 야근 등이 꼽혔다. 특히 여직원 비중이 40%에 달하는 목포시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아 직원들이 자녀양육 등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5시 30분과 50분 두 차례에 걸쳐 청내 방송을 통해 "매주 수요일에는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는 수요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 하게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사유를 제출

받고 있다.

신현정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매주 수요일을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의 날로 정한 것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며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로 가족 사랑을 키우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열 조짐

4개 계파 구도 복잡한 셈법 20여일 앞두고 후보 6명 거론

제10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난립하는 등 조기 과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이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국민의당 13명, 더불어민주당 5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등 4개 계파로 갈라져 구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류(국민의당)를 제외한 비주류 의원이 9명에 달해 국민의당 당내 경선을 통한 의장단 독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주류의 연합집산 등으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에도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단이 꾸려졌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 부의장 선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전례가 있는 데다, 전반기처럼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경우 탈락자들이 뒤처져 비주류 쪽과 합종연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당내 경선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경선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데다가 경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일부 의장 출마자들이 민선 6기 후반기 원활한 시정운영 등을 조건으로 총선 직전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후반기 의장선거는 한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경찰 '찾아가는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호응



목포경찰이 '찾아가는 외국인 도움센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경찰은 최근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필리핀의 날 행사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도움센터' 부스를 마련하고, 이주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와 함께 범죄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필리핀 총 공원과 다문화가족 어린이 장기자랑, 필리핀인 노래·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체류 필리핀인은 물론 목포시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정폭력 이 사회 문제화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면서 언어 등 표현에 한계가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외국인 행사나 모임 등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외국인 이주여성 및 근로자의 조기 정착 지원은 물론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목,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 / 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